

대학원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폭력 경험, 경제적 환경, 관계갈등, 건강행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김다혜*** · 함옥경**** · 서민희***** · 박시현*****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원생은 대학원 과정을 통해 학문적인 지식을 얻고 연구방법을 배우며, 궁극적으로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들은 재학 중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꼽았다(Lee, 2015).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수, 동료 등과의 대인관계에서 여러 심리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Joeng et al., 2015). 특히 지도 교수와 제자의 학문적인 종속관계가 암묵적으로 관행화되어 있어 이로 인해 대학원생의 정신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Lee, 2015). 대표적으로 2011년 한 해 동안 국내의 특정 대학에서 4명의 대학원생이 자살한 사건이 있으며, 자살한 대학원생 중 한 명은 우울증을 진단받았다(Kim & Jeon, 2011). 또한, 2017년 텀블러 폭탄 테러 사건과 같이 스트레스

를 주는 특정 대상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고, 그 외에도 지도 교수에게 폭력, 성희롱 등 여러 형태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Jeon, 2017). 대학원생은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식의 축적과 확산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과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이다. 따라서 이들의 정신건강 저하는 국가의 생산성과 산업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학원생들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Lee, 2015).

국내 대학원생의 정신건강 상태는 크게 우려되는 수준이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64.2%가 우울감을 나타내는 집단으로 확인되었으며 24.5%가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그중 8.7%가 자살 계획을 세우거나 시도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Kang, Kim, Kim, Won, & Lee, 2017). 여러 정신건강의 지표 중 우울은 식욕 상실, 수면장애와 같은 생리적인 증상부터 자기 비난, 동기 상실, 자살사고에 이르는 인지

* 본 논문은 제 1저자 김다혜의 석사 학위논문 축약본임.

** 본 연구는 보건장학회의 지원으로 수행하였음.

***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https://orcid.org/0000-0002-3022-2195>) (교신저자 E-mail: dahyekim.research@gmail.com)

****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https://orcid.org/0000-0001-9063-4020>)

*****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https://orcid.org/0000-0002-4964-7978>)

*****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조교수(<https://orcid.org/0000-0003-1808-345X>)

• Received: 21 October 2020 • Revised: 15 January 2021 • Accepted: 29 March 2021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im, Da Hye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100 Inha-ro, Michuhol-gu, Incheon 22212, South Korea

Tel: +82-32-860-8200 Fax: +82-32-874-5880 E-mail: dahyekim.research@gmail.com

적인 증상으로 나타난다(Beck, 1967). 특히 우울이 자살 생각 또는 자살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면에서 대학원생의 우울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Kahng, 2010).

국외의 경우 대학원생의 우울 및 정신건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선행 연구들을 다수 찾을 수 있었다(Evans, Bira, Gastelum, Weiss, & Vanderford, 2018; Garcia-Williams, Moffitt, & Kaslow, 2014).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정 학문 분야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거나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구분하지 않고 우울을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전공영역의 구분 없이 국내 전체 대학원생의 우울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포괄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국내 대학원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대학원 생활 중 다양한 폭력 경험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대학원생의 우울 관련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경제적 환경을 필히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앞서 언급한 경제적 환경, 폭력 경험, 관계 갈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 요인, 행동 요인을 함께 고려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스트레스에 대한 보편적인 반응은 우울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Lee, 2014), 개인의 행동, 사고 형태, 정서반응 등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 역시 우울에 주효과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어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를 개인 요인으로 선정하였다(Kim & Park, 2012; Bandura, 1978). 또한, 건강을 보호, 유지, 증진하기 위해 행하는 개인의 구체적인 행위인 건강행위를 행동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개인·환경·행동 요인 간에 연관성을 분석하고 이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원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사회경제적 환경(폭력 경험, 경제적 환경, 관계갈등), 건강행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이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원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구체적인 연구 모형은 Figure 1과 같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1) 현재 국내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 2) 한국어로 된 설문지를 읽고 응답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자, 3)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이다. 제외 기준은 1) 휴학한 지 1년 이상인 자, 2) 외국인이다. 대상자의 표집은 편의추출법을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대상자 수를 산출하기 위해 G*Power 분석을 하였다. 다중회귀 분석을 위하여(예측변인 14개) F-검정, 효과크기=0.15, $\alpha=0.05$, Power(1- β)=0.80 등의 자료를 입력하였고 그 결과 135명이 산출되었다. 자료 수집 과정 중 탈락자를 약 10%로 고려하여 총 150명에게 자료 수집을 하였다.

3. 연구 도구

일반적 특성에는 대상자의 나이, 성별, 소속 단과대학, 학위과정을 조사하였다. 경제적 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학업 형태, 한 학기 학비, 학비 마련 경로, 대학원을 다니면서 겪는 경제적 부담의 주관적 인식 정도, 경제적 문제로 인한 학업 중단 고려 여부를 질문하였다. 소속 단과대학은 공학계열, 이학계열, 인문사회계열, 의학계열, 협동과정(인문사회계열), 협동과정(공학/이학계열),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으로 구분하였다. 학위과정은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구분하였고, 학업 형태는 전업학생(full-time), 비전업학생(part-time)으로 나누었다. 학비 마련 경로는 장학금, 교내 임금, 지원, 직업소득, 교외 파트타임 소득, 대출 등으로 하였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겪는 경제적 부담의 주관적 인식 정도의 경우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점=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5점=매우 부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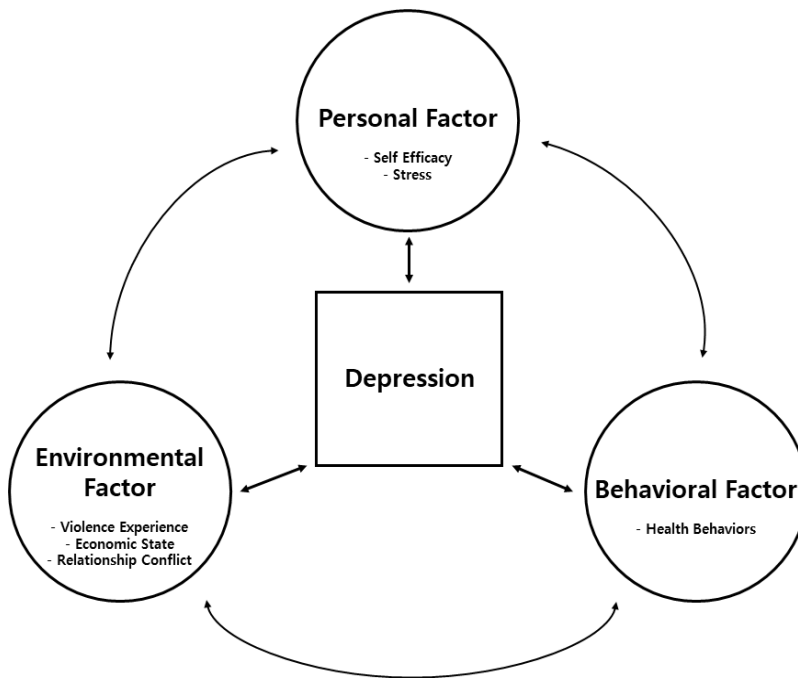


Figure 1. The Flow Diagram of Study Selection

1)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Sherer 등(1982)이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때 원저자에게 도구의 원본과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공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식 5점 척도로, '확실히 아니다'는 1점에서 '확실히 그렇다'는 5점이다. 총점은 최저 17점에서 최고 8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herer 등(1982)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 값은 .7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2) 스트레스

대학원생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Cohen, Kamarck와 Mermelstein (1983)이 개발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Cohen (1988)이 단축형으로 수정하여 Lee (2005)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삶에서 경험한 상황을 스트레스로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총 10문항이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여, 총점은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 (2005)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3으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 α 값은 .89였다.

3) 폭력 경험

폭력 경험은 Yeon 등(2008)의 폭력형태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개 영역인 언어적 폭력, 심리적 위협, 물리적 폭력, 심각한 물리적 폭력, 성희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별로 폭력경험 빈도와 심각성을 각각 측정하였다. 폭력 경험 횟수는 0회에서부터 1-2회, 3-5회, 6회 이상으로 측정하였으며 기간은 대학원 재학 기간 중으로 설정하였다. 폭력 경험 여부는 한 번이라도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분석하였다. 폭력 경험의 심각도는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낮다'는 1점에서 '매우 높다'는 5점으로 측정하며, 폭력 경험이 없을 경우 심각도를 측정하지 않으므로,

폭력 경험 심각도 합은 최소 0점, 최대 75점이다. 폭력 경험 심각도 합이 클수록 폭력 경험 심각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폭력 경험 심각도의 Cronbach α 는 .75였다.

4) 관계갈등

교수, 대학원 과정 선배, 동료, 후배와의 관계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Murray와 Greenberg (2000)의 애착관계 도구와 Nolten (1994)의 사회적 지지 도구를 Moon (2001)이 수정·보완한 인간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인간관계 척도는 우호관계, 불만관계, 사회적 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불만관계만을 사용하여 관계갈등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의 부모, 교사, 또래와의 관계에 대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의 관계를 교수와의 관계로, 또래와의 관계를 동료와의 관계로 수정하였다. 문항은 각 8문항씩 총 16문항이며,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에서 '매우 그렇다'는 4점이다. 총점은 최저 8점, 최고 3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갈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Moon (2001)의 연구에서 교사관계갈등과 친구관계갈등 척도의 Cronbach α 는 각각 .78, .82였으며 본 연구에서 교수와의 관계갈등과 동료와의 관계갈등의 Cronbach α 값은 각각 .86, .90으로 측정되었으며 전체 문항의 Cronbach α 는 .89였다.

5) 건강행위

대학원생의 건강행위를 측정하기 위해 Lee와 Park (2017)이 개발한 대학생 건강행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영양관리 6문항, 몸을 잘 보살피기 8문항, 위해행동 줄이기 5문항, 스트레스 관리 5문항, 약물복용관리 3문항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안함'은 1점에서 '항상'은 5점으로 측정하며, 총점은 최저 27점부터 최고 135점까지 분포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행위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87점 이상일 때 건강행위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Lee & Park, 2017). Lee와 Park (2017)의 연구에서는 각 하위 요인별 Cronbach α 와 반분계수는 모두 .7 이상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 α 는 .85였다.

6) 우울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통합적 한국판 Centers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사용하였다(Chon, Choi, & Yang, 2001). 이 도구는 지난 1주일간의 주관적인 심리를 근거로 우울에 대한 인식을 묻는 것으로,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 그랬다'는 3점, '자주 그랬다'는 2점, '가끔 있었다'는 1점, '극히 드물다'는 0점으로, 총점은 0점에서 6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며, 20점 이하를 '정상군', 21-24점을 '우울증상군', 25점 이상을 '주요우울군'으로 분류하였다. Chon 등(2001)의 연구에서 Cronbach α 값은 .91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 α 는 .93이었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전공, 대학, 학위과정이 다른 대학원생 5명을 대상으로 연구 도구 문항의 적절성, 이해 정도와 온라인 설문조사 시의 어려움 등에 대하여 사전 조사를 거쳐 본 조사를 시행하였다.

4. 자료 수집 절차

자료 수집은 2019년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모든 자료는 대상자가 구글 설문지를 통해 직접 자가-보고하도록 수집하였다. 연구의 목적, 대상자의 조건, 연구 방법 등이 기입된 포스터와 설문조사를 위한 구글 설문지 링크를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올브레인(대학원생 이용 사이트), 카카오톡 등에 게시하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중응답을 막기 위해 구글 로그인을 하도록 하였다. 이때 구글 계정은 수집하지 않아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우려는 없도록 하였다. 먼저 설문조사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이 대상자 선정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설문지 첫 페이지에 학위과정과 휴학 기간을 질문하였다. 대상자가 학사과정이거나 휴학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대상자의 선정조건에 맞지 않으므로 설문조사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안내를 하여, 연구 대상에 적합한 대상자들만 참여하도록 하였다. 연구에 적합한 대상자가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이해하고 해당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는지 선택하도록 하여 구글 설문지 내에서 동의서를 받았다. 결측값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항들에 대해 필수 응답을 설정하였으며 폭력 경

험의 심각도는 피해가 있는 경우만 응답할 수 있으므로 필수 응답을 설정하지 않았다. 소요 시간은 20-25분이며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에게는 5천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하였다. 이를 위해 구글 설문지에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는 모바일 기프티콘 제공 후 삭제될 예정임을 안내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SPSS/PC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폭력 경험, 관계갈등, 건강행위, 우울에 대한 분석은 기술 통계(평균, 표준편차, 빈도, 퍼센트)를 이용하였다. 개인·환경·행동 요인, 우울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개인 요인, 환경 요인, 행동 요인이 각각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잔차의 산점도와 P-P 도표, 더빈-왓슨 통계량을 통해 회귀분석의 가정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등분산성, 독립성을 확인하였으며, 통계분석 시 통계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였다. 회귀분석 시 양측검정에서 유의수준을 $p < .05$ 로 설정하였으며, 폭력을 경험하지 않아 폭력 경험 심각도 합이 결측값인 경우 '0'으로 처리하여 계산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학 기관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190516-2A)을 받은 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자료 수집은 익명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자료는 개인에게 부여된 ID로만 입력하였다. 전공의 경우 특정 연구실이나 학과를 기재하지 않고 소속 단과대학 수준의 전공 분야를 선택하도록 하여 대상자가 느낄 수 있는 부담감을 최소화하였다. 분석한 자료 보고 시에는 개인별 점수가 아닌 전체 대상자들의 평균값으로 보고할 예정이므로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은 없음을 명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책임자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타인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연구 종료 3년 후 자료를 영구 삭제할 예정이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52%였으며 평균 연령은 28.05(±3.19)세이었다. 학업 관련 특성은 석사과정이 63.6%, 공학계열이 38.7%를 차지하였다(Table 1).

2. 대상자의 개인·환경·행동 요인과 우울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점수의 평균은 54.32(±9.40)점, 스트레스 점수의 평균은 29.25(±7.75)점이었다. 학업 형태는 전업학생(full-time)이 91.3%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학비 마련 경로는 복수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장학금이 56.0%, 교내 임금이 48.7%이었다. 경제적 부담 정도는 '약간 부담이 된다'가 33.3%, '매우 부담이 된다'가 22.0%이었다. 또한, 대상자의 29.3%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학업 중단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수와의 관계갈등 점수 평균은 16.05(±5.34)점, 동료와의 관계갈등 점수 평균은 12.11(±4.72)점이었다. 폭력 경험은 대학원 재학 중 1회 이상 폭력에 노출된 경험의 여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50%는 5가지 폭력 중 한 가지라도 경험한 적이 있었다. 폭력의 유형에 따라 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언어 폭력 경험이 4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성희롱 경험이 14.7%로 뒤를 이었다. 폭력을 경험한 대상자의 폭력 경험 심각도를 합한 점수의 평균은 5.87(±5.90)점이었다. 건강행위의 평균 점수는 87.77(±15.38)점, 우울의 평균 점수는 18.41(±10.41)점이었다. 우울의 점수에 따라 분류하면 대상자의 27.3%는 주요우울군, 7.3%는 우울증상군으로 나타났다(Table 2).

3. 개인·환경·행동 요인, 우울의 상관관계

연구결과 개인 요인(자기효능감, 스트레스), 환경 요인(경제적 부담 정도), 행동 요인(건강행위), 우울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효능감 점수는 스트레스($r = -.50, p < .01$), 경제적 부담 정도($r = -.16, p < .05$), 우울($r = -.51, p < .01$)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건

강행위($r=.28, p<.01$)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스트레스 점수는 경제적 부담 정도($r=.24, p<.01$), 우울($r=.77,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건강행위($r=-.37, p<.01$)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경제적 부담 정도는 우울($r=.23,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건강행위($r=-.20, p<.05$)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건강행위 점수는 우울($r=-.37, p<.01$)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4. 개인·환경·행동 요인, 우울의 위계적 회귀분석

대상자의 개인·환경·행동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우울과 상관관계가 높은 스트레스($r=.77$)를 제외한 변수(자기효능감, 경제적 부담 정도, 관계갈등(교수, 동료), 폭력 경험 여부, 폭력 심각도 합, 건강행위)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 분석 결과 분산팽창지수(VIF)가 1.12~1.60으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Durbin-Watson 값이 1.85

로 2에 가까우므로 오차항의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였으며, 잔차의 산점도, P-P도표를 통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등분산성, 독립성 가정이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아 위계적 회귀분석 시 일반적 특성을 보정 하지 않았다.

먼저 개인 요인(자기효능감)을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 Model 1의 결과, 회귀모형은 26.3%의 설명력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2.70, p<.001$). Model 1에서 환경 요인(경제적 부담 정도, 관계갈등, 폭력 경험 여부, 폭력 심각도 합, 건강행위)를 추가로 투입한 결과, Model 2는 44.1%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18.77, p<.001$). 이때 환경 요인의 추가 설명력은 17.8%이었다. 마지막으로 행동 요인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Model 3의 회귀모형은 우울의 약 48%를 설명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8.51, p<.001$). 행동 요인인 건강행위는 3.6%의 추가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Model 3에 의하면 자기효능감과 건강행위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았고, 폭력 경험이 있는 경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N(%) or M ± SD	min	max
Gender	Female	72(48.0%)		
	Male	78(52.0%)		
Age		28.05 ± 3.19	22	39
Degree Course	Master	95(63.3%)		
	Doctor	24(16.0%)		
	Integrated	31(20.7%)		
Major	Engineering	58(38.7%)		
	Natural Science	25(16.7%)		
	Medicine	7(4.7%)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35(23.3%)		
	Arts/Sports	4(2.7%)		
	Combined Program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4(2.7%)		
	Combined Program (Engineering/Natural Science)	3(2.0%)		
	Specialist Graduate School*	7(4.7%)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6(4.0%)		
	Other	1(0.7%)		

M=Mean; SD=Standard deviation.

*Specialist Graduate School (Engineering, Business, Education, Policy etc.).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Law, Medicine, Logistics, Information Technology & Telecommunications etc.).

Table 2. Personal, Environmental, Behavioral factor and Depression

Variables		N(%) or M±SD	min	max
Self-efficacy		54.32 ± 9.40	27	77
Stress		29.25 ± 7.75	14	47
Type of Study	Full-time	137(91.3%)		
	Part-time	13(8.7%)		
Educational Expenses per Semester	Under 1 million won	26(17.3%)		
	Over 1 million won and under 3 million won	23(15.3%)		
	Over 3 million won and under 3.5 million won	31(20.7%)		
	Over 3.5 million won and under 4 million won	24(16.0%)		
	Over 4 million won and under 4.5 million won	8(5.3%)		
	Over 4.5 million won and under 5 million won	9(6.0%)		
	Over 5 million won and under 5.5 million won	8(5.3%)		
	Over 5.5 million won and under 6 million won	6(4.0%)		
	Over 6 million won and under 7 million won	9(6.0%)		
Ways of Paying Tuition Fees*	Over 7 million won	6(4.0%)		
	Scholarships	84(56.0%)		
	On-campus employment	73(48.7%)		
	Support from family or relatives	43(28.7%)		
	Full-time employment (off campus)	9(6.0%)		
	Part-time employment (off campus)	24(16.0%)		
	Loans	20(13.3%)		
Financial Burden	Other	1(0.7%)		
	Not burdensome at all	8(5.3%)		
	Not all that burdensome	23(15.3%)		
	Normal	36(24.0%)		
	Quite burdensome	30(33.3%)		
Seriously consider ending of study due to economic problems	Very burdensome	33(22.0%)		
	Yes	44(29.3%)		
Relationship Conflict	No	106(70.7%)		
	Professor	16.05 ± 5.34	8	32
Violence Experience †	Coworker	12.11 ± 4.72	8	32
	Yes	75(50.0%)		
Experience of Violence	No	75(50.0%)		
	Verbal Violence	68(45.3%)		
	Psychological Threat	9(6.0%)		
	Physical Violence	8(5.3%)		
	Physical Injury	2(1.3%)		
	Sexual Harassment	22(14.7%)		
Sum of Violence Experience Severity (n=71)		5.87 ± 5.90		
Health Behavior	Doing Well (≥ 87)	85(56.7%)		
	Not Doing Well (< 87)	65(43.4%)		
Depression	Normal (< 20)	98(65.3%)		
	Depressive Symptoms (21-24)	11(7.3%)		
	Major Depression (≥ 25 points)	41(27.3%)		

M=Mean; SD=Standard deviation.

*Multiple responses.

†Verbal Violence, Psychological Threat, Physical Violence, Physical Injury, Sexual Harassment.

우와 폭력 경험 심각도 합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다(Table 4).

IV.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원생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우울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한 지 1년 미만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인·환경·행동 요인 간에 상관관계를 조사하였고 각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7.3%가 우울증상군이었으며 27.3%는 주요우울군으로, 약 34.6%의 대학원생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tudy Variables

	1	2	3	4	5	6	7	8	9
	r								
1. Self-efficacy	1								
2. Stress	-.50**	1							
3. Financial Burden	-.16*	.24**	1						
4. Relationship Conflict (Professor)	-.30**	.44**	.27**	1					
5. Relationship Conflict (Coworker)	-.29**	.37**	.14	.40**	1				
6. Violence Experience	-.03	.41**	.15	.39**	.20*	1			
7. Sum of Violence Experience Severity	-.07	.35**	.20*	.43**	.24**	.56**	1		
8. Health Behaviors	.28**	-.37**	-.20*	-.12	-.13	-.11	-.06	1	
9. Depression	-.51**	.77**	.23**	.39**	.36**	.36**	.39**	-.37**	1

* $p < .05$, ** $p < .01$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on

Factors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β	S.E	t(p)	β	S.E	t(p)	β	S.E	t(p)
	Constant	-	4.31	11.42 ($<.001$)	-	5.81	6.05 ($<.001$)	-	6.49	6.98 ($<.001$)
Personal Factor	Self-efficacy	-.51	0.08	-7.26 ($<.001$)	-.44	0.08	-6.48 ($<.001$)	-.39	0.08	-5.73 ($<.001$)
Environmental Factor	Financial Burden				.06	0.59	0.97 (.332)	.03	0.58	0.52 (.607)
	Relationship Conflict (Professor)				.03	0.15	0.40 (.692)	.04	0.15	0.49 (.625)
	Relationship Conflict (Coworker)				.13	0.15	1.84 (.068)	.12	0.15	1.79 (.076)
	Violence Experience				.20	1.60	2.54 (.012)	.17	1.56	2.31 (.022)
	Sum of Violence Experience Severity*				.19	0.17	2.41 (.017)	.20	0.16	2.60 (.010)
Behavioral Factor	Health Behavior						-.202	.04	-3.15 (.002)	
	R ² (adjusted R ²)	.26(.26)			.44(.42)			.48(.45)		
	ΔR^2	.26			.18			.04		
	F(p)	52.70($<.001$)			18.77($<.001$)			18.51($<.001$)		

S.E=Standard error.

*Sum of the severity of all violence experiences experienced by the subject. The higher the score, the higher the frequency or severity of violence experienced by the subject.

이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전반적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우울의 연구가 부족하여 CES-D의 한국형 단축설문을 사용한 서울대인권실태보고서(Kang et al., 2017)의 실태조사와 비교를 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64.2%가 우울감을 느낀다고 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적은 수치로 보인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우울을 측정한 연구와 우울 평균 점수를 비교하면, 국내의 한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의 우울 평균(16.7-17.7)에 비하여, 본 연구의 우울 평균 점수(18.41±10.41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oi, Shin, Bae, & Kim, 2014; Lee, 2012). 반면 병원간호사나 의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우울평균이 20.5-21.2점으로 본 연구의 우울 평균 점수보다 더 높게 보고되었다(Lee, Oh, & Byun, 2013; Noh & Na, 2015).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지만, 국내 대학원생의 우울을 측정하는 연구 자체가 적으므로 좀 더 다양한 대학원생을 표집하여 우울을 반복 측정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추후 연구에서는 우울증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는지, 우울감을 느낄 시 교내에 도움을 청할 곳이 있는지 등을 함께 질문하여, 대학원생의 우울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와 학교 차원에서 이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건강센터 간호사는 학내 구성원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사회간호사로서 문제를 호소하는 대상자를 케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례 발굴, 문제 예방을 위한 홍보,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대상자, 전달, 인구집단, 전달 중심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Chin, & Kim, 2016).

본 연구에서는 개인 요인(자기효능감, 스트레스), 환경 요인(경제적 부담 정도), 행동 요인(건강행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자기효능감과 건강행위(Bae, Ryu, Han, & Choi, 2015; Kahng, 2010),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Bae et al., 2015; Kahng, 2010; Kim & Park, 2012; Lee, 2005), 스트레스와 건강행위(Bae et al., 2015)의 상관관계를 지지하거나, 일부 지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경제 상태(Kahng, 2010), 건강행위와 경제 상태(Bae et al., 2015)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에 따

르면 인간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중 외부적인 영향에 대해 단순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 과정을 통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Bandura, 1978). 따라서 경제적인 문제 또는 특정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한 대처방식으로 건강행위를 선택할 때, 개인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지 과정을 거쳐 각자 다른 수준의 건강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대처한다고 할 수 있다(Glanz, Rimer, & Viswanath, 2008). 환경 요인의 차원에서 보면 대상자의 대부분이 전업학생이지만 장학금과 교내 임금으로 학비를 해결한다는 답변이 각각 56.0%, 48.7%에 불과하며, 55.3%가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약 30.0%가 경제적인 문제로 학위과정 중단을 고려한 적이 있다. 이는 대학원생의 전반적인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Lee (2015)는 대학원생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방안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대학원생의 일자리를 늘리거나, 현재 대학 내에서 일하고 있는 임금을 현실화하거나, 정부가 장학금 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장학금 외의 연구비 지원, 기숙사 제공 등의 여러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원생의 경제 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인·환경·행동 요인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자기효능감, 폭력 경험, 건강행위가 우울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우울을 가장 크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26$). 자기효능감이 우울과 관련이 있다는 것 역시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Kim & Park, 2012). 임상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우울을 연구한 Kim과 Park (2012)의 연구결과 자기효능감이 우울에 대해 12%의 설명력을 가졌는데 이는 자기효능감이 간호사의 우울 정도를 설명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같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직접적인 성공 경험, 타인의 성공을 관찰하는 것, 성공할 수 있다고 격려하는 사회적 설득, 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나타내는 신체적, 정서적 상태를 통해 형성된다(Bandura, 1994). 따라서 대학원 과정의 본질은 연구 활동이며 이를 통해 최종 진로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대학원생이 원하는 연구 활동과 관련된 성과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속

적인 격려를 통해 자기효능감을 높이도록 도움을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교수에게 충실한 수업이나 논문지도를 받지 못하거나, 본인의 연구 외 업무시간이 과도한 실정이다(Lee, 2015). 따라서 대학원생이 원하는 연구 활동에 대해 스스로 단기적, 장기적 목표를 정하도록 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해 교수가 지속해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제공하여 자기효능감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폭력 경험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직장 내 폭력과 우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직장 내 폭력 경험이 근로자의 우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Kim, Kim, & Kim, 2015).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50%가 대학원 재학 중 교수, 동료 또는 기타 가해자에게 언어폭력, 심리적 위협, 물리적 폭력, 신체적 손상, 성희롱 중 한 가지 이상의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의 유형별로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언어폭력이 대상자의 45.3%에게 경험이 있는 것으로 가장 높았으며, 성희롱이 14.7%, 심리적 위협이 6.0%, 물리적 폭력이 5.3%, 신체적 손상이 1.3%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권실태 조사(Kang et al., 2017) 결과, '폭언 및 욕설'은 33.8%, '성희롱적 발언이나 음담패설'은 12.4%, '강제적 성추행, 강간 혹은 강간미수'는 2.6%, '기합 및 구타'는 3.9%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인다. 대학원생이 경험한 폭력 피해 경험은 각종 대중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으며 실태조사(Kang et al., 2016; Lee, 2015)를 통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이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외국의 경우 대학원생의 연구 환경에 관한 연구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학내 노동에 대한 경제적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질 뿐 국내에서 문제 제기되고 있는 폭력 경험 등의 학내 인권침해를 다룬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 이에 Lee (2015)는 선진국 유명 대학들에서는 우리나라의 폭력 경험과 같은 학내 인권침해 사례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하였는데 그 기반은 각종 규정을 통해 대학원생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

우 대학 내 인권침해 사례를 대처하기 위해 2017년 교육부는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정 등을 권장하며 대학에 권리장전(안)을 제공하였다. 대학원생 권리장전(안)의 제1장 총칙 제2조 기본원칙의 2항은 '대학원생은 어떠한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하고, 연구하고, 근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권리장전이 존재하지만 지도 교수는 지도 학생의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학생의 졸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교수와 학생의 관계를 갑과 을의 관계로 보는 경우가 많아 폭력과 같은 인권침해 사례는 여전하다(Lee, 2015). 또한, 2018년 '전국 대학교수 성범죄 성희롱 징계 현황' 국정 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3년간 전국 144개 대학 중 38개 대학의 총 47명의 교수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으나 43%인 20명은 여전히 대학 강단에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수와 학생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폭력 경험이 어도 고발하기 어렵다는 점과 폭력의 징계가 약하다는 점으로 인해 대학 내 폭력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토대로 학내 폭력 관련 규정을 제도화하고 학내 폭력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반한 교수에 대하여 강력한 징계를 내려 대학원생의 권리 침해 시 이것이 문제화되고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압력의 문화와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교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연구실 내 동료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역시 예방 및 관리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대학원생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다.

국내 병원 레지던트들의 직장 내 폭력 경험과 우울 증상에 관한 연구를 시행한 Kim 등(2015)은 직장 내 폭력 경험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2가지 측면에서 생물학적으로 설명하였다. 첫째, 폭력 경험 피해자들이 대응 방법으로 흡연, 음주와 같은 건강위해 행동을 선택하고 이것이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폭력 경험과 건강행위 간의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건강행위와 우울은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므로 Kim 등(2015)의 가설을 일부 지지하였다. 둘째, 폭력 경험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코티졸

분비 증가나 교감신경계의 항진으로 병리적 변화가 발생하여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폭력 경험이 스트레스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스트레스 역시 우울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스트레스는 우울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r=.77, p<.01$), 이는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Tafet & Nemeroff, 2016; Lee & Kim, 2014). 따라서 대학원생의 우울을 관리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폭력 경험뿐만 아니라 여러 요인으로 인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대학원생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행위가 우울의 3.6%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행위와 우울의 관계는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Lovell, Nash, Sharman, & Lane., 2015; Lee & Shin, 2014). Lee와 Shin (2014)의 연구는 교대근무 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 중 신체활동과 대인관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 5%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존 선행 연구들은 흡연, 음주와 같은 건강위해행위가 우울증상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건강위해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신체활동, 채소 섭취와 같은 건강증진행위를 할 가능성이 낮다(Lovell et al., 2015). 이에 건강행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우울 역시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건강행위와 우울은 양방향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외 매개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폭력 경험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 건강행위가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파악함으로써 대학원 생활의 어두운 현실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대학원생 대상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식기반사회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핵심 인력인 대학원생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상자를 편의추출하였으므로 전체 대학원생에게 일반

화시키기는 어렵다. 둘째, 폭력 경험은 대상자의 자가보고식 응답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시간에 지남에 따라 명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워 의도하지 않은 반응(recall bias)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는 경향(social desirability)으로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았을 수 있다. 셋째, 폭력 경험의 심각도의 경우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는데 이는 개인마다 심각도에 대한 기준이 매우 다를 수 있으므로 응답편의(response bias)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온라인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자발성에 의존하므로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비응답 오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다섯째, 관계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인간관계 척도는 청소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척도로 대학원생의 관계갈등을 확인하는데 제한이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원생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인 요인(자기효능감, 스트레스), 환경 요인(폭력 경험, 경제적 부담 정도, 관계갈등)과 행동 요인(건강행위) 간의 상관관계와 각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개인 요인(자기효능감, 스트레스), 환경 요인(경제적 부담 정도), 행동 요인(건강행위)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기효능감, 폭력 경험, 건강행위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원생의 우울을 중재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일부 대학원생을 편의 표집하였으므로 추후 확대 표집하여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Bae, Y. G., Ryu, S. Y., Han, M. A., & Choi, S. W. (2015). The association between life stress, self-efficacy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among some university students.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41*(2), 99-109.
- Bandura, A. (1978). The self system in reciprocal determinism. *American Psychologist, 33*(4),

- 344-358.
<https://doi.org/10.1037/0003-066X.33.4.344>
- Bandura, A. (1994). Self-efficacy. *Encyclopedia of Human Behavior, 4*, 71-81.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Chin, Y. R., & Kim, H. (2016). The role of community health nurse in essay written by a nurse practitioner of primary health care post.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0(20)*, 300-310.
<https://doi.org/10.5932/JKPHN.2016.30.2.300>
- Choi, E. M., Shin, J. R., Bae, J. H., & Kim, M. S. (2014). The relationships among depression, anxiety, impulsivity and aggression and internet addiction of college students -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8)*, 329-341.
<https://doi.org/10.5392/JKCA.2014.14.08.329>
- Chon, K. K., Choi, S. C., & Yang, B. C. (2001). Integrated adaptation of CES - D in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6(1)*, 59-76.
- Cohen S, Kamarck T, & Mermelstein R. (1983).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ournal of Health Social Behavior, 24(4)*, 385-396.
<http://dx.doi.org/10.2307/2136404>
- Evans, T. M., Bira, L., Gastelum, J. B., Weiss, L. T., & Vanderford, N. L. (2018). Evidence for a mental health crisis in graduate education. *Nature Biotechnology, 36(3)*, 282-284. <https://doi.org/10.1038/nbt.4089>
- Garcia-Williams, A. G., Moffitt, L., & Kaslow, N. J. (2014). Mental health and suicidal behavior among graduate students. *Academic Psychiatry, 38(5)*, 554-560.
<https://doi.org/10.1007/s40596-014-0041-y>
- Glanz, K., Rimer, B. K., & Viswanath, K. (2008).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4th ed.). San Francisco: Jossey-Bass.
- Jeon, H. J. (2017, June 15). The graduate student who made tumbler bombs, decided to commit a crime after getting scolded for his thesis. Munhwa Ilbo. Available fr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61501031139310001>
- Kahng, S. K. (2010). Does depression predict suicide?: Gender and age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attitud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1(2)*, 67-100.
- Kang, S., Kim, I. H., Kim, C. A., Won, K. J., & Lee, W. chang. (2017). *2016 Graduate school students human rights situation and research environment survey*.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Student Council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 Kim, Y. H., & Jeon, J. S. (2011, April 7). KAIST "The cruel spring". Hankyoreh. Available from: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1970.html
- Kim, J. H., & Park, E. (2012). The effect of job-stress and self-efficacy on depression of clinical nurs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1(2)*, 134-144.
<https://doi.org/10.5807/kjohn.2012.21.2.134>
- Kim, J. H., Kim, J. Y., & Kim, S. S. (2015). Workplace violence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medical residents in South Korea: 2014 Korean interns & residents survey. *Health and Social Science, 39(1)*, 75-96.
- Kim, S. M. (2018). *The effect of the moderate drinking program based on social cognitive theory on college students with drinking*

- proble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 Lee, E. J., & Shin, S. W. (2014). The effect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on fatigue and depression among shift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4), 2256-2264.
<https://doi.org/10.5762/kais.2014.15.4.2256>
- Lee, G. C., & Park, Y. S. (2017). The study of evaluation of university students` health behavio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2), 517-529.
<https://doi.org/10.14400/JDC.2017.15.12.517>
- Lee, I. G. (2015). *Survey on the research environment of graduate students*(No. 11-1620000-000593-01). Seoul: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Lee, J. E. (2005). *The effects of self-complexity and self-efficacy on depression and perceived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 Lee, S. H. (2012).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drinking problems of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3(4), 366.
<https://doi.org/10.12799/jkachn.2012.23.4.366>
- Lee, S. H., & Kim, S. J. (2014). The degree of perceived stress, depression and self esteem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3), 453-464.
<https://doi.org/10.5932/JKPHN.2012.26.3.453>
- Lee, S. Y. (2014). Factor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and depression according to gender among Korean adul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8(1), 71-86.
<https://doi.org/10.5932/JKPHN.2014.28.1.71>
- Lee, W. S., Oh, Y. J., & Byun, D. Y. (2013). The academic stress,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of graduate medical school students : Testing the buffering effect of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37, 45-70.
- Lovell, G. P., Nash, K., Sharman, R., & Lane, B. R. (2015). A cross-sectional investigation of depressive, anxiety, and stress symptoms and health-behavior participation in A ustralian university students. *Nursing & health sciences*, 17(1), 134-142.
<https://doi.org/10.1111/nhs.12147>
- Moon, E. S. (2001).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related to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Murray C., & Greenberg MT. (2000). Children's relationship with teachers and bonds with school an investigation of patterns and correlates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8(5), 423-445.
[http://dx.doi.org/10.1016/S0022-4405\(00\)00034-0](http://dx.doi.org/10.1016/S0022-4405(00)00034-0)
- Noh, J. H., & Na, Y. K. (2015). Effects of violence experience, emotional labor, and job stress on clinical nurses'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4(3), 153-161.
<https://doi.org/10.5807/kjohn.2015.24.3.153>
- Nolten PW. (1994).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Madison, WI. USA.
- Tafet, G. E., & Nemeroff, C. B. (2016). The links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Psychoneuroendocrinological, genetic, and environmental interactions. *Journal of Neuro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28(2), 77-88.
<https://doi.org/10.1176/appi.neuropsych.15030053>

Yeon, S. J., Kim, W., Won, Y. S., Rhee, K., & Hong, Y. O. (2008). *The structure and culture of violence in school sports, hospitals and workplaces of foreign employees*(UCI: I410-ECN-0101-2010-364-002067730). Seoul: Korean Institute of Crimonology.

ABSTRACT

Association between Self-efficacy, Stress, Violence Experiences, Economic state, Relationship Conflict, Health Behaviors and Depression in Graduate Student

Kim, Da Hye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Ham, Ok Kyung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Suh, Min Hee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Park, Sihyun (Assistant Professor,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on among Korean graduate students. Specifically, personal (self-efficacy, stress), environmental (violence experience, economic state, and relationship conflict), and behavioral (health behavior) factors were analyzed. **Methods:** This study used a cross-sectional study design. One hundred and fifty participants currently enrolled in graduate programs were recruited. Google Drive was used for online data collection.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al analyse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Results:** First, 52% of the participants were male, with an average age of 28.05(\pm 3.19). Master's students comprised the largest proportion (63.3%). Approximately about 38.7% were engineering majors. Second, approximately 27.3% had depressive symptoms; and 7.3% had major depression. Third,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ersonal, environmental (financial burdens), and behavioral factors. Fourth,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a lower depression level to be associated with a higher self-efficacy level and health behavior. In contrast, a higher depression level was related to violence experience. **Conclusion:** The government should press on establishing rules on the prevention and regulation of violence in universities, and impose strong disciplinary measures to root out the problem. In addition, universities must pay attention to the mental health of graduate students and establish systems to manage them.

Key words : Depression, Violence, Self Efficacy, Health Behavior